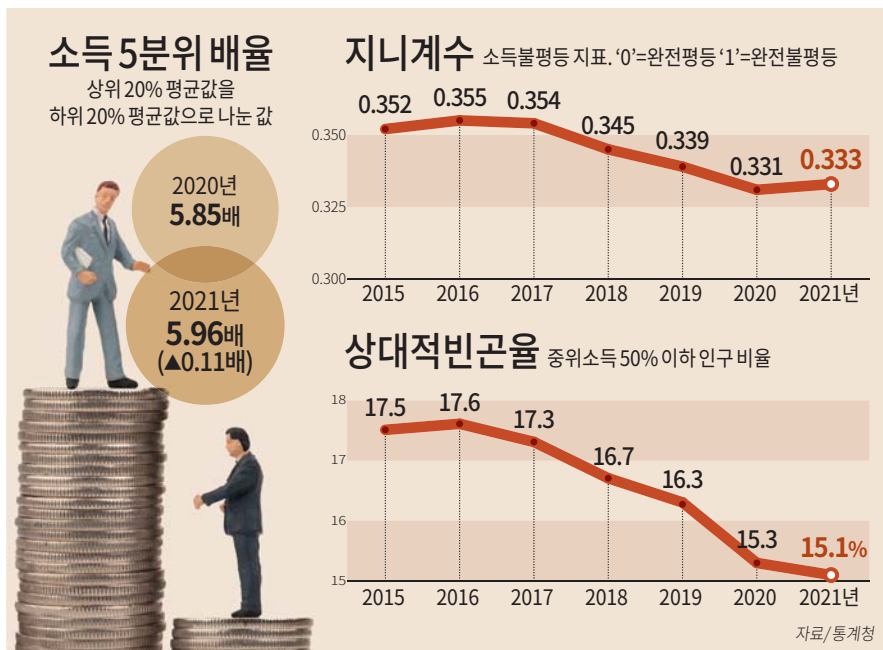


달힌 지갑에 경제지표 '신음'... 상·하위 소득격차 약 6배

민간소비 1.9→1.7%로 0.2%p ↓
실질 국민총소득 465조1000억
소득 불평등도 '지니계수'도 악화

고물가와 고금리 탓에 소비 여력이 위축되며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여주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전분기보다 0.7% 감소했다. 글로벌 경기둔화에 최근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연쇄 총파업 등의 악재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수출상황도 악화돼 무역수지 적자는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대내외적 불확실성 확대에 경제 지표 곳곳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가계 소득 격차는 더 벌어졌다. 지난해 상위 20%인 고소득층과 하위 20% 저소득층 간 소득은 6배 가량 차이가 나며 분배지표는 5년 만에 다시 악화됐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대비 0.3% 오르는 데 그쳤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도치(0.3%)와 동일한 수준으로 성장이 정체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



더구나, 민간소비가 기존 1.9%에서 1.7%로 0.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되며 오락·취미용품 등 준내구재와 음식·숙박 등 서비스업 중심으로 하락세를 보였다. 그만큼 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 1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0.7% 줄어 들었다. 내수 부진에 수출마저 악화되고 있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우리나라 수출이 519억1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4.0% 감소했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 10월에 이어 2개월째 감소세를 이어 갔고, 감소 폭도 두 자릿수로 커졌다. 특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늘며 지난 달 무역수지는 71억달러 적자를 기록

했다. 이로써, 올해 연간 누적 적자는 426억달러를 넘어섰고, 무역수지는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글로벌 공급망 위축에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잇따른 총파업 영향으로 침체된 경기가 더 얼어붙고 있다는 게 정부 분석이다.

경제 지표가 나빠지면서 분배 지표 중 하나인 소득 5분위 배율은 5년 만에 악화됐다.

이날 통계청, 한국은행 등이 발표한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6배로 1년 전보다 0.11배포인트 증가했다.

여기서 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소득의 평균값을 1분위의 소득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뜻한다. 상위 20%인 5분위 소득 평균값이 하위 20%인 1분위보다 5.96배 많아졌다는 의미다. 문제는 소득 5분위 배율이 지난 4년 간 개선된 모습을 보이다 지난해 들어 다시 나빠졌다는 점이다.

임경은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2020년에는 전 국민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소비쿠폰, 한시적 생계지원 등 저

소득층을 중심으로 추가지원금이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중심으로 지원 대상이 변경되면서 저소득층 소득이 감소했다"며 "정부의 공적 이전 효과가 큰 1분위 소득이 감소하면서 5분위 배율이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덩달아, 소득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도 5년 만에 악화됐다.

지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333으로 1년 전보다 0.002 증가했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한다.

지니계수 또한 4년 연속 개선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악화됐다.

정부는 소득·분배 등 여러 경제 지표들이 나빠지고 있는 상황을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최진규 기획재정부 복지경제과장은 "취약계층의 고용·사회안전망 강화, 물가 안정 등을 통해 저소득층 가구 부담 완화, 민간 중심으로 소득·분배 여건이 개선되도록 경제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무역수지 -70억달러... IMF 이후 최장 적자 3분기 GDP 성장률 0.3%... 내수로 버텼다

에너지 위주 수입 급등
화물연대 운송거부 등 영향
대 세계 수입 3개월 연속 ↓

지난달 수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에너지 위주 수입이 급등하며 무역수지 적자가 8개월째 이어졌다. 글로벌 경기둔화에도 지난달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등이 복합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달 수출은 519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603억달러) 대비 14.0% 급감했다. 수입은 589.3억달러(+2.7%)로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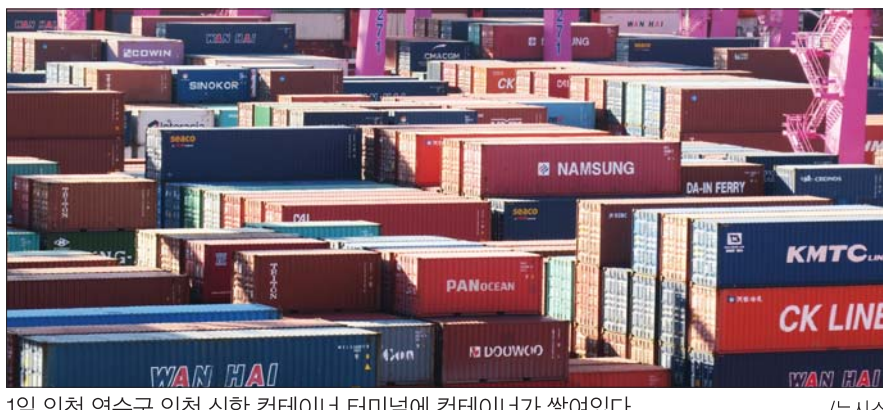
무역수지 적자는 올해 4월부터 지난 달까지 8개월째 이어지며 IMF 이후 최장기간 계속되고 있다. 무역적자 규모는 지난 8월 -94.0억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크다.

◆ 수출 급감... 세계 경기둔화에 화물연대 총파업 복합 영향

주요국 금리인상과 러·우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으로 각국 수입 수요가 둔화되는 상황이다. 미국·유럽연합 등 선진시장은 높은 물가압력 대응을 위한 금리인상 등으로 소매판매 증가세 둔화 등 경기둔화가 지속되고 있고, 우리 최대 수출국인 중국은 부동산 침체, 제로 코로나 등 영향으로 경기 부진이 이어지며 대 세계 수입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우리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는 수요 약세·재고누적 등 영향으로 제품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품목별로 자동차(31.0%)와 석유제품(26.0%)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했고, 차부품(0.9%), 이차전지(0.5%) 수출도 소폭 증가했다. 반면, 반



1일 인천 연수구 인천 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컨테이너가 쌓여있다. /뉴시스

도체(-29.8%), 석유화학(-26.5%), 무선통신(-18.7%), 디스플레이(-15.6%), 철강(-10.6%) 등 수출은 두 자릿수 감소했다.

문동민 무역투자실장은 브리핑에서 "자동차와 이차전지 수출은 역대 11월 최고실적을 경신했고, 특히 자동차는 지난 7월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수출 50억달러를 돌파했다"면서 "다만,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요약세와 화물연대 운송거부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반도체와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품목 수출이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최대 수출국인 대 중국 수출은 113억 8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5.5% 감소한 수준이다. 3대 수출지역인 아세안 수출(90.8억달러) 역시 13.9% 감소했고, 일본(-17.8%), 중남미(-19.1%), 인도(-5.9%)로의 수출이 줄었다.

대미 수출은 87억9000만달러(+8.0%)로 2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고, 중동(4.5%)과 CIS(4.6%), 유럽연합(0.1%)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무역수지 적자의 주 원인은 대규모 에너지 수입이다. 11월 원유·가스·석탄 3대 에너지원 수입액은 155억1000만달러로 전년(122.1억달러) 대비 33억달러(27.1%) 상회했다.

◆ 1~11월 누계 첫 6000억달러 돌파... 자동차·석유제품 버팀목

다만, 1~11월까지 누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6291억달러로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수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특히, 자동차와 석유제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둔화 영향이 본격화된 7월 이후에도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며 하반기 수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연합 등의 친환경 정책 영향으로 시장이 확대 중인 이차전지·전기차, 고부가 품목인 OLED와 시스템반도체 등 여러 신산업 품목도 1~11월까지 증가세를 보이며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아세안·미국 등 주력시장과 유럽연합·중동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이 크게 증가하며 대 중국 의존도가 2021년 25.3%에서 2022년 1~11월 23.0%로 완화됐다. 특히, 대미 수출(1004억달러)은 처음으로 연간 1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정부는 에너지 위기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화물연대 운송거부까지 작용하며 수출 감소폭을 키웠다고 보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실질 무역손익 35조7000억으로 줄어

우리나라 경제가 올해 3분기 0.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465조1000억원으로 전기대비 0.7% 감소했다.

한국은행이 1일 발표한 '2022년 3분기 국민소득(잠정)' 통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지난 10월 발표된 속도치(0.3%)와 동일한 수치다.

다만 앞서 속도치에 반영하지 못한 통계를 추가한 결과 민간소비가 1.9%에서 1.7%로 0.5%포인트(p) 하향 조정됐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의 영향으로 오락 및 취미용품 등 준 내구재와 음식숙박 등의 대면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증가했다.

건설투자는 토목건설이 줄며 0.2% 감소했다. 반면 설비투자는 기계류와 운송장비가 모두 늘어 7.9% 증가했다.

지난 2분기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0.7% 감소한 465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GNI는 전체국민이 일정기간 국내외에서 벌어들인 임금, 이자, 배당 등 모든 소득을 합친 것

로,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국민이 외국에서 번 소득에서 외국인 이 국내에서 번 소득을 뺀 국외순취요소소득이 2분기 4조4000억원에서 3분기 7조3000억원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 악화로 실질 무역손익이 같은 기간 28조원에서 35조 7000억원으로 더 크게 줄어 실질 GNI도 감소했다.

물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은 명목 GNI는 전기 대비 0.1% 감소한 546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 국외순취요소소득이 2분기 2조5000억원에서 3분기 7조2000억원으로 늘어 명목 GDP성장률(-0.4%)을 상회했다.

전반적인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전년동기 0.2% 상승했다. GDP디플레이터는 명목GDP를 실질 GDP로 나눈 것으로, 국민소득에 영향을 주는 모든 물가요인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물가지수다.

총저축률은 32.7%로 전기대비 1.5%p 하락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0%)보다 최종소비지출(2.2%)이 더 높은 증가율을 보인 영향이다. 국내 총투자율은 설비투자 등을 중심으로 2.2%p 오른 34.5%를 기록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